논어 6편 옹야 24장 · 원문·풀이

宰我問曰：「仁者雖告之曰：『井有仁焉。』其從之也？」子曰：「何爲其然也？君子可逝也，不可陷也。可欺也，不可罔也。」

독음 · 재아문왈 인자수고지왈 정유인언 기종지야 자왈 하위기연야 군자가서야 불가함야 가기야 불가망야

쉬운 풀이(요약) · 어진 사람이라고 우물에 무턱대고 뛰어들지는 않는다. 군자는 그럴듯한 말에 속을 수는 있어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에 완전히 빠지지는 않는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宰 주관할 재 재 / 我 자기 아 아 / 問 물을 문 문 / 曰 가로 왈

仁 어질 인 인 / 者 놈 자 / 雖 비록 수 수 / 告 알릴 고

之 갈 지 / 井 우물 정 정 / 有 있을 유 / 焉 어찌 언 언

其 그 기 / 從 좇을 종 종 / 也 어조사 야 / 子 아들 자

何 어찌 하 하 / 爲 할 위 / 然 불사를 연 연 / 君 임금 군

可 옳을 가 가 / 逝 갈 서 서 / 不 아닐 불 / 陷 빠질 함 함

欺 속일 기 기 / 罔 그물 망 망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